

# 심리학 실험자는 무엇을 측정하는가?

- 박 동섭
- [littleegan@gmail.com](mailto:littleegan@gmail.com)

# 마셔도 되나요?

- 상황: 실험자가 아이에게 두 가지 똑같은 크기의 컵에 주스의 양이 같이 되도록 따르라고 한다. 아이는 주스를 따르고 있다. 그런데 그만 한쪽 컵의 주스의 양이 더 많게 되었다.
-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?
- 근데 그게 실험실에서 일어나다 보니?!?

# 마셔도 되나요?

- 1 실험자: 마실 주스의 양이 같은가요? 아니면 한 쪽이 많은가요?
- 2 아동: 내가 이쪽에 좀 많이 따른 것 같아요.
- 3 실험자 (다시 한번 실험에 응하는 법을 교시하고 나서) 어떻게 하면 좋을까?
- 4 아동: (침묵)
- 5 실험자: 한 쪽 컵이 많으면 조정도 가능합니다.
- 6 아동:마셔도 되나요?
- 7 실험자: 안 됩니다.

# 마셔도 되나요?

- 상식적인 수준에서 본다면, 아이가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양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컵 한쪽의 주스를 마시는 것은 실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고의 해결책은 아닐지 모르지만 얼토당토하지 않은 해결책이라고도 할 수 없다.
-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(김지호의 비락우유 광고)
- 그런데 그 실험자는 그 대답을 거부하였다. 왜 그랬을까?

# 마셔도 되나요?

-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그녀는 그 해결책을 합법적(legitimate)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
- 사실상 이 해결책은 scientific handbooks에도 실려 있지 않을 뿐더러 “how to be a good Piagetian psychologist” 비디오에도 나와 있지 않다.

# 마셔도 되나요?

- 이러한 예에서 우리는 심리학자가 몸담고 있는 연구 제도가 그/그녀에게 부과한 frame(틀)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실험자가 이러한 해결책을 상상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에 쉽게(?) 다다르게 된다.
- 주스를 마신다는 행위는 테스트 상황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아주 일상적인 활동이다.

## 마셔도 되나요?

- 따라서 실험자가 보기에 그 아이는 주스를 마신다는 것은 가설적인 행위이고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시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어야만 한다.

# 마셔도 되나요?

- 아이가 마시지 못하도록 함으로써, 실험자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행위가 특권화된 (authorised) 행위인지(어떠한 행위가 더 우세한지(dominance) 혹은 어떠한 행위가 더 적절한지-appropriate)를 지적하고 있고, 제도적으로 상황과 과제의 의미를 규정짓고(frame) 있다.

# 마셔도 되나요?

- 그러나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실험자의 행위는 순식간에(embodied-신체화되어 있기 때문에) 혹은 암묵적인 지식(Tacit Knowledge)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.
- 여러분이 수업의 마지막 즈음에 내가 “질문 있습니까?”라고 물었을 때 필기구를 가방에 넣는 것 처럼...

# 마셔도 되나요?

- 실험자의 행위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.
- 한편으로는 실험자는 아동의 행위를 안내해 주고,
- 다른 한편으로는 실험자는 아동의 행위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.

# 마셔도 되나요?

- 말을 바꾸면 실험자는 아동의 활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과 동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.
- 이러한 실험자의 행위는 똑같은 방식으로 실험자가 몸담고 있는 특정한 연구제도에 의해서 방향 지워지고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.

# 보존개념 실험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

- Piaget등은 보존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대상의 물리적 속성이 변해도 양은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. 확실히 이러한 실험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맞아 떨어질지도 모른다.

# 보존개념 실험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

-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이 실험이야말로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하게 대답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‘보존 개념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고 보면 어떨까?
- ‘선생님 쇼핑이 아니라 수부핑인것처럼

# 말이 가진 힘

- 무지개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.
- 빨주노초파남보와 같이 7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무지개는 실제로는 수많은 색들로 이루어져 있다.
- 단지 편의상 색을 7가지로 나누었기 때문에 7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. 단지 일곱 가지의 색이름을 붙임으로써 우리는 무지개의 중간색을 인지하지 못하고, 무시해 버린다.

# 말이 가진 힘

- 이것이 말이 가진 삭제의 힘이라면 그 반대의 힘 역시 존재한다.
- 단 한 번이라도 인간의 눈앞에 나타난 적이 없는 드라큘라, 드래곤, 용 등과 같은 것들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.

# 보존개념 실험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

- 심리학자와 아이는 집단 간의 갈등과 이데올로기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하고 있을 뿐이다.
-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공통의 사투리(과학어)를 찾아내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.
- 거기에는 다양한 ‘사투리’만이 난무할 뿐이다.